

제약기업 성장모멘텀 양호하다!

현대증권, 동아·한미·유한 매우 우수 ... 적정주가 상향조정

현대증권은 11월21일 국내 제약산업의 재평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품력과 영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상위 제약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며 관련기업들의 적정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조운정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제너릭(특히 만료된 복제·개량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제약업종의 성장모멘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업종 투자 의견으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실제 10월 원외처방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해 3개월 연속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이 원외처방 매출액에서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후발기업에 비해 제품력과 영업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상위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대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 최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정주가를 14만원에서 18만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아제약은 위염치료제 스틸렌의 상업화 이후 독자개발 신약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며 적정주가를 8만5000원에서 10만000천원으로 올렸으며, 대웅제약도 경쟁력이 강한 오리지널 제품군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정주가를 4만4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조정했다.

<화학저널 2005/11/22>